광주기독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지역 내 필수의료 책임 중추적 기관 위상 강화

광주기독병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사진은 기독병원 전경.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이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광주기독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2차 종합병원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대상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한 병원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광주기독병원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 역량, 전문 진료체계, 지역 연계 기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금이 제공된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주기독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1등급

이승욱 병원장 "모든 진료 분야 지역민 건강 증진 최선"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심사평가원은 폐렴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광주기독병원은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9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지표는 총 5개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항생제 투여율로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아 폐렴 진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승욱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폐렴뿐 아니라 모든 진료분야에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기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적정성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필리핀에 124, 125번째 예배당 헌당

광주은평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광주은평교회(김범택 목사)는 지난 6월 30일 ~ 7월 5일, 필리핀 다바오(강치원 선교사)에 124, 125번째 예배당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번 124, 125번째는 광주은평교회의 임미숙 집사와 박연순 권사가 섬겼으며, 광주은평교회의 15번째, 16번째다.

예배당은 45평이며 모든 음향과 악기(드럼, 건반, 기타, 베이스)를 포함하여 3,5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강치원 선교사는 파송처, 파송교회 없이 동역자와 함께 2007년부터 다바오에서 18년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왔으며, 현재 11월에 헌당 될 126, 127번째 예배당을 기공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127번까지의 예배당 중에 20여 곳은 교회에서 섬겼고, 나머지는 개인(가정)에서 섬겼다.

김범택 광주은평교회 담임목사는 "이 모든 사역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신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평교회가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124, 125번째 예배당을 짓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더디오칼럼

박 현 주 본지 발행인

나는 바우어새인가?

주로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에 서식하는 바우어새는 독특한 구애 행동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수컷 바우어새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몇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공을 들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웃에 사는 다른 새들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일반 새들이 따라올 수 없는 호화로운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 1m 높이의 둥지를 지어놓고 각종 열매, 꽃, 조약돌, 조개껍데기 등을 물어와 내부를 꾸미고 과일즙으로 외벽을 칠하기도 하며 장식물이 시들거나 낡으면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우어새는 숲속의 작은 정원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만 보면, 이 수컷 바우어새는 아주 성실하고 능력까지 갖춘 로맨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애의 과정을 거쳐 신부 바우어새를 데려다 신방을 차리고, 깨를 볶아 이웃의 새들로부터 부러움과 시샘을 받으며 새끼를 낳고 잘 살기만 하면 좋았으련만, 이 바우어새 이야기에는 경악할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암컷을 유혹하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한 뒤에 수컷은 돌연 폭군으로 돌변한다는 것이죠.

암컷을 부리로 쪼아대며 못살게 괴롭히고 새끼도 돌보지 않고는 또 눈을 돌려 새로운 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곤 조류학자들은 '가장 뻔뻔한 새'라고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바우어새라는 종들이 갖는 독특한 DNA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바우어새만 그런가요?

인간세계에도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도 항상 처음 스파크가 일었던 순간처럼 뜨거움이 지속될 수만은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말이지요.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때론 섭섭함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소중함이 점점 무뎌지고 소홀해지면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게 되면 오랜 시간 맺어졌던 인연이 허무하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수컷 바우어새가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과의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평생 섬겨오신 교회공동체와의 관계는요?

잘못된 관계가 굳어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변화의 몸짓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굳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님, 그리고 교회공동체와의 관계를 돌이켜 회복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미션21이 창간 26주년을 맞으며, 그동안 맺어온 소중한 인연과 관계들을 되짚어보고 생각해봅니다.

미션21이 세상에 고고성을 울리며 창간호를 냈던 1999년 7월부터 26주년이 된 2025년 7월 현재까지를 되돌아보니, 그 당시 신문에 창간 축하의 격려사를 써주시고 창간 축하광고를 내주시며 문서선교에 대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1세대 목회자님들이 모두 불러나시고 이제는 현장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소위 2세대 목회자님들도 거의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눈앞에 앞두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필자 역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에 대해 무뎌지고 권태가 찾아올 때, 지난 세월 받은 배려와 격려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잊고 지냈던 감사가 물밀 듯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지난 26년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뒷받침 해주신 목사님들과 애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관계와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 미션21 창간26주년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그리스도는 십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킨다!

남택률 이사장

"YFC"는 Youth For Christ 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라는 뜻을 가진 국제적인 초교파 청소년 전문 선교 단체 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고, 훈련된 제자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비전이다.

이 일은 세계 127개국에서, 한국에서는 13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1972년, 당시 수피아여고 교사이던 송준용 장로에 의해 시작 되어,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 계 지도자 40명의 이사와 50여명의 후원 회원과 초교파로 10개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원식 대표

주요 사역: ◎토요 모임(매주 11시) ◎청소년 영한 성경 암송대회 ◎국제청소년캠프 및 단기선교 ◎청소년 사역 지도자 세미나 ◎학교클럽 활동(CLC)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연2회) ◎청소년 Summer Camp

(사단법인)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YFC)

우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번지 (4층) 전화 (062)369-7298 간사 010-9694-7298

후원계좌 (광주은행) 016-107-312115 (농협)355-0369-7298-13 예금주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

축 미션21 창간26주년 SMB

광주·전남 시니어선교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80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일상에서 실현하는 선교적 삶과 지역교회와 함께 이루는 선교공동체

기도제목

1. 교회와 선교단체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2. 교회의 풍성한 인적 자원들이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 시니어 선교회 4대 비전이 균형있게 실현되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목 적

한국교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인 시니어 세대(40~80대)를 일으켜 선교전문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총체적 선교 사역의 할로를 개척 지원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전파"의 사명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이 사 장	방충헌 장로
선교훈련원장	석창원 목사
회 장	정동훈 장로
이주민선교센터장	전득안 목사
다음세대 및 의료선교위원장	서강석 원장
재정 및 행사위원장	김정숙 권사
기도 및 봉사위원장	서인정 집사

4대비전

1.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
2. 국내 이주민을 품는 선교
3. 남북통일을 예비하는 선교
4.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과 책임을 다하는 선교

주요활동

1. 선교학교 운영
2. 선교동원, 선교사 협력 및 파송
3. 비전 트립, 각종 선교세미나 포럼 개최
4. 글로벌 컨퍼런스, 선교대회, 기도회

상담문의 : 정동훈 장로 010-3646-8291